

## 조경산업 발전의 기반을 향상시킨 값진 한해



姜 仁  
(社)韓國造景樹協會 會長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한 壬午年도 어느 새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업무와 조경사업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 모두를 접어둔 채, 금년의 한해가 얼마남지 않음을 생각하니 지나간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한지 2년여 동안 열심히 노력한 일들을 회상해보니 잘한 일, 못한 일, 모두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가슴을 달래면서 참으로 세월은 流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 느껴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통령선거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세계는 테러 예방과 자국경제 발전에 총력을 경주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조경인들은 造景산업을 誠實하게 經營하면서 生產農家의 所得增大와 輸出擴大는 물론 都市 및 生活空間을 快適하고 아름답게 自然環境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음으로써 농산촌 경제발전과 푸른 녹지 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음은 온 국민이 인정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우량 조경수 생산과 회원들간의 기술 교류증진 및 화목단결을 위해 많은 努力を 傾注한 바 있습니다.

금년과 지난해에 우리 회원과 임원이 바라고 원하던 어려운 일들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것이 해결되었음을 회원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오며,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첨 게재하였으니 보시고, 사업경영에 반영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기관의 산림조합으로 일원화와 이자를 4%로 인하, 조경수 재배를 위한 임야훼손신고 면적을 3만㎡로 확대, 조경수 자연재해시 법적 보상근거

## 마련과 금년에 처음으로 피해 회원에게 107억 복구, 보상지원

-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던 조경전담 부서인 산림문화과와 녹지조경계가 산림청 조직으로 신설되어 산림문화 창달과 도시 녹지조경의 집중관리와 지원토록 되어있고, 우수 및 모범농장표창과 육성, 선진 해외기술 정부지원연수, 조경수 생산확인을 협회에서 주관하고, 조경수 감정평가 전담화, 경북, 울산지부 창립으로 회원증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협회 상근임원 감축 및 운영비 감액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에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개선하고, 지원해 주신 산림행정당국에 회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 못한 과제인 조경산업 및 가격업무의 산림청으로 일원화와 생산농가의 적정한 이익보장과 수급안정 제도화,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 등은 우리 회원들이 다함께 계속 노력해야 하겠으며, 연초 이사회 및 정기총회 시 새로운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함께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임원님과 회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계평화와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국가별로 경쟁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우리 나라도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 모두가 안정하고 잘 살수 있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傾注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회원들은 선진경제, 복지국가에 걸맞는 푸른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快適하고, 살기좋은 푸른공간을 조성하는데 모든 努力과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길러온 智識과 技術을 總合하여 우량 조경수 생산과 아름다운 조경공간을 만들어 조경인들의 眇持를 높여나가는 한편, 신품종, 신기술개발과 상호협력을 통한 弘報도 강화하여 우리의 自立基盤 향상과 조경산업 발전을 기필코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님과 산림행정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12

(사)한국조경수협회장

강 인